천국과 지옥 존재하는가? 그 해답은…

‘신의 흔적을 찾아서’

바바라 해거티 지음

신의 존재에 관한 논쟁
“인정할 수 없다”
“실체를 믿어야 한다”

현직 언론인의 추적
최첨단 연구 바탕으로
영성의 과학 탐사

신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역사적으로 치열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신의 존재에 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과학계와 종교계의 시각만큼이나 극과 극을 달린다. 보이지 않으니 인정할 수 없다는 측과 보이지는 않으나 실체를 믿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여기 금단의 프로젝트를 시작한 베테랑 기자가 있다. 그는 ‘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 취재에 나선 현직 언론인이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자 논픽션 작가인 바바라 헤거티(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 대표기자)가 쓴 ‘신의 흔적을 찾아서’는 신의 존재 증거를 찾기 위한 기록이다.

그는 언론인 특유의 감각과 최첨단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영성의 과학’을 탐사한다. 저자는 신, 우주, 영적 세계를 둘러싼 의문을 풀기 위해 세계 정상급 과학자들을 만난다. 과학자들의 연구는 생명의 DNA에서 죽음 이후까지, 뇌의 회로에서 우주의 과학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다.

오늘날의 과학은 뇌파 측정기와 뇌 스캐너로 ‘영적 체험’을 목격할 만큼 놀라운 발전을 했다. 생각이나 감정 같은 비신체적인 요소가 신체 세포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여러 감정, 특히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심장발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례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그 뿐인가. 어느 연구는 기도가 에이즈 말기 환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까지 뒷받침한다. 기존의 미신으로 취급되었던 부분이 지금은 과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다.

“아이론은 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CD4(면역체계의 일부로서 HIV 같은 바이러스와 종양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포를 2배 오래 유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신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CD4 세포를 3배 오래 유지했다.”

저자는 임사체험을 30년 동안 연구한 정신과 의사와 영적 거장들의 뇌를 연구한 저명한 과학자도 만난다. 영적 체험에 관여하는 뇌 부위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의 의견도 듣는다.

이들을 취재한 결과 뇌와 정신은 일정부분 의미 있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뇌파 검사를 이용한 연구는 ‘생각 송신자’의 뇌파 활동이 변하면 ‘수신자의 뇌파’도 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저자는 이 모든 사례가 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는 확언하지 못한다. 어쩌면 신의 존재를 검증하려는 시도 자체가 난센스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처럼.

“자기희생은 어디서든 찬양을 받고 살인은 어디서든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그러한 위계질서는 물리학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내면, 블래즈 파스칼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있는 신의 형상을 한 공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만,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신비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믿음의 몫이다.”

〈김영사·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이질적인 문명이 주고 받는 ‘만남과 갈등’ 조명

‘문명의 교류와 충돌’

성해영 외 16명 지음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성지 팔레스티나와 성도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들로부터 빼앗기 위해 감행했던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다.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을 상징하는 이 전쟁에서 교황의 권위는 추락했고 왕권이 강화되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 문명교류사로 미뤄보면 십자군 원정은 이질적인 문명의 폭력적인 만남이자 동시에 교류의 장으로, 지중해 무역 활성화와 학문의 수입 등 다방면이 교류를 촉진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유럽이 이슬람과 교류의 물꼬를 텄고 나아가 중국과도 교류하면서 세계 경제에 편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문명의 교류와 충돌-문명사의 열여섯 장면’은 ‘문명과 비문명’, ‘서구문명과 비서구 문명’, ‘중심과 주변’ 등 고전적인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문명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대등한 ‘만남의 과정’을 조명했다.

성해영씨 등 16명 저자들은 페르시아 전쟁이 이질적인 문명들의 만남이 마치 거울처럼 타자를 통해 나를 자각하고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한다. 그리스 시인 아이스킬로스는 ‘페르시아 비극’ 작품에서 전제정치와 위계질서, 엄청난 부와 사치, 비겁함을 페르시아인의 속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 이는 그리인스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립해가는 과정이었다.

〈한길사·1만80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역사책에서 볼 수 없었던 백성들의 밑바닥 삶

‘조선백성실록’

정명섭 지음

조선 백성들의 은밀하면서도 다채로운 삶을 그린 실록이 나왔다. 문학과 역사에 관해 글을 써온 정명섭 씨가 펴낸 ‘조선백성실록’은 조선 왕조가 남긴 백성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왕조실록’이 왕실 중심으로 기술된 것과 달리 ‘조선백성실록’은 교과서나 역사서에서 볼 수 없었던 밑바닥 이야기를 다룬다. 주류가 아닌 아류, 정사가 아닌 야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 선정에 값하는 기획 의도와 맞물려 흥미를 배가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속 백성들은 순박하고 순종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조선백성실록’의 백성들은 제도와 억압을 감내하는 무명인이 아니라 반항적이면서도 비열한 이미지를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왕의 금지령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 던지기 놀이’를 즐기고 저화(종이돈)를 강권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는다. 종말론과 사이비 교주를 맹신하고, 죄를 면하기 위해 이웃을 모함하는 이도 있다.

가부장문화의 주변이었던 여성과 이방인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남편의 외도에 맞바람을 피우고 이혼장을 내놓는 아녀자와 결혼을 세 번 이상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해서 망신을 당하는 이도 있다. 책에는 조선의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저자는 조선시대를 거꾸로 봄으로써 그 실상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데 의미를 뒀다고 강조한다. 〈북로드·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실추된 스승의 명예 그 진실은…

‘HQ 사건의 진실1·2’

조엘 디케르 지음

스위스 출신 젊은 작가 조엘 디케르의 신작 ‘HQ 해리 퀴버트 사건의 진실 1·2’가 나왔다.

‘모두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내 책 이야기를 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소설의 화자는 스물 여덟의 나이에 스타 작가가 된 마커스 골드만이다.

미국 대선이 한창이던 2008년 미국 대표 지성 해리 퀴버트의 집 정원에서 33년 전 실종된 소녀의 유해가 발견된다. 특히 소녀의 시체 옆에 퀴버트의 대표 소설 ‘악의 기원’ 타자원고까지 발견되면서 그는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다.

대학 때 그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은 골드만은 실추된 스승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한다.

출간 1년만에 프랑스에서만 70만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로 반전과 트릭이 절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학동네·각권 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버려진 것들에서 소중함을 찾다

‘참꽃 피는 마을’

임의진 지음

다사다난한 일상 이야기와 함께 소박한 시골 동네의 풍경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시골교회 목사 임의진의 참수필집 ‘참꽃 피는 마을’이 홍성담의 그림을 만나 어우러지며 새롭게 출간됐다.

‘참꽃 피는 마을’은 저자가 1995년 담임 목사로 부임해 10년간 머물었던 남쪽바닷가 강진의 한 마을이자, 책에 담긴 작고 따뜻한 세상을 일컫는다. 책에는 이웃의 소중함, 작고 버려진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담은 30여 편의 수필이 수록됐다.

저자는 가난하고 슬픈 삶들을 복되고도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그의 곡진한 삶의 몸부림을 통해서 스며 나온 것이다. 일상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시선, 그 시선에서 끌어 올린 이야기를 통해 이웃한 사람들의 다정함과 마을의 풍경을 생생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섬앤섬·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 텔링의 성공 비법

‘스토리 전쟁’

조나 삭스 지음

공장식 축산의 실상을 고발한 애니메이션 ‘미트릭스’, 소비 지상주의 비판 동영상 ‘물건 이야기’ 등을 제작하며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킨 조나 삭스의 첫번째 책 ‘스토리 전쟁’이 출간됐다.

마케팅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된 저자는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신화, 광고의 역사, 진화생물학, 심리학, 마케터 거장들로부터 얻은 통찰 등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성공 전략을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인 ‘매트릭스’나 ‘스타워즈’, ‘아바타’에서부터 고전을 넘어 삶의 지침이 된 ‘오디세이’, 성경 속 모세의 이야기까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고대 신화의 이야기 구조를 따른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메시지들은 위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모두가 스토리텔링을 말하는 시대에 다시 한번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책은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식과 단계별 가이드를 제시한다. 성공스토리의 기본 원칙과 스토리의 교훈을 표현하는 법, 스토리를 구체화하는 기술, 핵심 요소를 설계하는 법 등 세밀한 전략기법을 설명하고 테스트를 통해 이를 실천해 볼 수 있게 했다.

〈을유문화사·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신간

▲작가의 얼굴=‘문학의 교황’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는 1967년 당시 몸담고 있던 회사로부터 집필 의뢰와 함께 그림 한 점을 받았다. 조각가이자 화가인 구스타프 자이츠가 그린 브레히트의 초상화였다. 이후 그는 작가들의 초상화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책에는 저자가 평생 수집한 작가들의 초상화가 60점 넘게 실려 있다. 작가는 초상화를 소개하며 그들의 삶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놓는다. 〈문학동네·1만8000원〉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철학가들은 삶 속에서 어떠한 사랑을 나누었을까?’ 폴란드 태생의 유태인 저자 엘즈비에타 에팅거는 같은 유태인이었던 한나 아렌트의 삶에 주목해 의문의 답을 풀고자 했다. 저자는 서술 과정에서 은연중에 아렌트를 향한 자신의 애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산지니·1만3000원〉

▲밤이 지나간다=편혜영 작가의 네번째 소설집 ‘밤이 지나간다’가 출간됐다. 이번 소설집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발표한 단편을 묶었다. 세번째 소설집 ‘저녁의 구애’에서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함과 더불어 현대인의 일반적인 불안과 고독을 이야기하며 그 어둠의 내막을 드러냈다면 이번 소설집에서는 절대고독 너머, 삶의 파국 이후에 은밀히 찾아오는 희망의 기미를 포착하고 있다.

〈창비·1만2000원〉

▲실내인간=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반대 방향으로 달려온 한 남자의 이야기. ‘보통의 존재’ 이석원의 첫 장편소설 ‘실내인간’이 출간됐다. 우리가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착각인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을 잊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많은 질문을 던진다.

〈달·1만2000원〉

▲과학 잡학 사전=어른, 아이 모두 배울 수 있는 일상의 사물에 숨은 과학지식. 가전제품에서 첨단기기,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소박한 과학적 의문점들을 그림을 이용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물건’에 얽힌 궁금증을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어젠다·1만2000원〉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외세에 약탈돼 145년의 유랑을 마치고 우리 곁에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그 반환협상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외교관 유복렬이 십수 년간 협상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담은 에세이이다. 외규장각 의궤를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의궤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한국을 향해 출발하는 날까지 겪어야 했던 숱한 고비들, 개인적인 감회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눌와·1만3000원〉

어린이 책 꽃이

▲돌이와 누렁이=송우영 작가의 첫 창작 동화집. ‘돌이와 누렁이’ 외에 ‘그 여름의 자전거’ ‘약 오른 고추’ ‘제사지내던 밤’ 4편의 단편 동화가 실려 있다. ‘돌이와 누렁이’는 어린이는 모든 생명을 사랑해 줄 수 있는 힘과 동물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고인돌·1만원〉

▲리어 왕=동화로 읽고, 희곡으로 상상하고, 듣는 연극으로 감상하고, 연극 공연을 직접 해 보며 원작이 지닌 고전의 품격을 최대한 살리면서 셰익스피어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하는 셰익스피어 예술 학교 시리즈. ‘리어 왕’은 사랑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 충성으로 맺어진 왕과 신하 등 관계의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다. 〈파랑새·1만5000원〉

▲흰민들레 소식=1975년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중견 동화작가 김옥애의 신작 그림책이 출간됐다. 주인공 명이의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흰민들레와 엄마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이야기지만 결코 교훈적이거나 설교적이지 않다.

〈청개구리·1만2000원〉

▲발바닥이 간질간질=부모와 아기 사이에 즐겁고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림책. 앞 장면에서 여러 동물들의 사랑스런 뒤태를 보여 주고, 뒤 장면에서는 동물들이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는 구조가 반복된다. 아기자기한 의성어, 의태어가 넘치지 않게 양념으로 들어가 있어 읽는 즐거움을 더해 준다. 〈책읽는곰·9800원〉

▲스토리텔링 초등 미술 교과서=미술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감상하면서 스팀교육(STEAM)에 필수적인 융합적 사고의 힘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준다. 책에서 다루는 21점의 작품은 초등 3~6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초등 교과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작가의 대표작들이다. 책 말미에는 교과 연계표가 실려 있다. 〈북멘토·1만4000원〉